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新農村開發을 위한 農學, 工學的 定住生活圈
模型의 開發 (I)
- 住民의 意識調查 -

Development of Rural Settlement Planning Model through
Engineering and Agricultural Approach (I)
- Analysis on Way of Thinking of Rural Residents -

金 鴻 允* · 李 信 昊** · 李 弘 柱* · 全 禹 亭*
Kim, Hong Yun · Rhee, Shin Ho · Lee, Hong Ju · Jeon, Woo Jeong
鄭 禮 杓* · 趙 興 洙* · 全 榮 吉*
Chung, Re Pyo · Cho, Heung Soo · Jeon, Young Gill

Summary

The way of thinking of rural residents(Izuk-myun, Anseong-gun, Kyeonggi-do) was surveyed in order to develop the basic model of new rural settlement planning. From the data collected in this survey, rural life-style, farmers' view on traditional rural life, agriculture, farming, agri-policy, social attitude,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rural life, etc. were analyzed.

Firstly, most of rural residents interviewed in this survey have the opinion of not leaving their home village if living conditions improved to a reasonable level in the near future.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village affairs, they want to participate actively and equally. Secondly, in spite of their acceptance of agriculture as a vital sector destined to national security, most of them think that farming should be little of promise. Thirdly, they have the negative attitude to urban-oriented social value and also to the agricultural policy, while seeking consolation through human and traditional viewing of rural life style.

Therefore, in the development of new rural settlement model, idea-making should be directed to the betterment of communal value of village life, stability of rural economy, rationalization of rural life style and enhancement of rural-type happiness.

* 安城農業專門大學

**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키워드 : 農村定住生活圈, 定住生活, 農村開發, 農村
計劃, 住民意識

I. 緒 論

급격한 經濟成長과 産業化 과정을 통해 나타난 都市와 農村 사이의 不均衡 問題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社會的 問題를 낳고 있다. 農村은 都市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所得과 열악한 生活 環境으로 相對的 貧困感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삶의 空間으로서 意味가 퇴색해 가고 있다. 生産 爲主의 量産 農業과 農業構造改善 정책으로 中·小農이 몰락하고 있고,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은 輸入自由化에 밀려 이미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의 農村實狀을 보면, 농촌사회의 붕괴로 傳統文化 繼承을 위한 保守基盤이 무너지고, 農民의 都市圈域 유입으로 農村에는 일손이 부족한 반면 都市는 이들 流入貧民이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社會的 費用의 증감과 국토의 空洞化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농업생산기반의 취약으로 농업 經濟運用이 곤란해지고 國土 管理費는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이 안정된 소득과 쾌적한 定住環境 속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실되어 가는 農村의 定住生活를 되살리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어 나가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⁴⁾

이러한 農村의 定住生活圈 연구는 인문사회학적, 또는 경제학적 측면으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自然科學的 또는 農村工學的으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農村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都市型 定住計劃이 수립되거나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여 그 實效性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농민이 실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농촌의 定住生活圈을 施工計劃하는 구체적인 기본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人文, 社會科學的 측면을 고려한 農學 및 工學的 接近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定住實態

와 定住意識, 傳統價值觀, 農業과 營農意識, 社會的 意識과 認識, 農業·農村 政策과 定住生活 滿足度 등에 대한 농촌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농민들의 개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농촌 정주생활권 모델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

II. 研究 方法

1. 對象地區의 選定

대상지구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農業所得, 農家所得 등에서 全國 平均値를 유지하여¹⁾ 郡 單位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경기도 安城郡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계획이 면단위로 시행되는 점과 지역, 지형적 특성, 인구 규모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검토한 후, 平野와 山地의 중간 지역인 二竹面을 선정하였다.

安城郡 二竹面の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은 Table-1과 같다.

2. 調査 方法

조사는 34개의 행정부락별로 人口比例的 層化抽出法에 의해 부락의 里長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20세 이하의 조사 대상자는 주로 실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원들의 설명과 함께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調査表는 총 인구 7,476명의 1/15에 해당하는 498명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조사하였다.

3. 調査 內容

定住實態와 定住意識, 傳統價值觀, 農業과 營農 意識, 社會的 意識과 認識, 農業政策과 定住生活의 滿足度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소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Table-1. 二竹面の 特性 및 一般 現況

구 분	특 성 및 현 황
1. 지역 특성	지 형 : 중산간 지역, 분지 교 통 :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전구간 포장,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접지역 재배작물 : 미작과 담배, 고추 등의 특수 작물 기 타 : 도시계획 고시 지역
2. 행정지역	법정리 10개, 행정리 34개
3. 인 구 ¹⁾	총 7,476명 (남 3,748명, 여 3,728명) 인구 증가율(1981년~1991년) △13.7%
4. 가 구	총 호수 1,979호(농가 1,488호, 비농가 491호), 호당 평균인구 3.7명
5. 소 득	호당평균 총 7,066천원(농업소득 5,677천원(80.2%), 농외소득 1,399천원(19.8%)) 최고 8,176천원(매산리 하구산 마을), 최저 5,542천원(칠장리 산직 마을)
6. 토지 이용	총면적 5,893ha → 농경지 1,572ha(논 985ha, 밭 587ha), 임야 3,682ha, 기타 639ha 호당경지면적 0.79ha(안성군 평균 1.20ha)
7. 수리안전담	수리안전담률 81%(794ha), 수리불안전담률 18%(174ha), 천수담 1%(17ha)
8. 교육 시설	유아원 2, 국민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9. 의료 시설	병(의)원 2,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10. 상 수 도	보급률 18.4%, 1인 1일급수량 207리터
11. 쓰레기·분뇨	대상가구(인구) 836호(3,477) 쓰레기 → 배출량 2,390t, 수거량 2,390t, 수거율 100% 분 뇨 → 배출량 1,258t, 수거량 641t, 수거율 51%
12. 시장 분포	정기 시장 1(5일장)

주 1) 인구는 1991. 10. 31. 기준

자료 : 안성군 통계년보(1991), 안성군 이죽면 면정보고(1991)

4. 資料 分析

조사한 자료는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숫자로 바꾸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住民의 전체적 경향을 분석하였다(나이별, 남 여별, 학력별, 가족원의 위치별 경향도 함께 분석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전체적 경향 분석만 싣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언급만 하였음을

밝혀 둔다).

분석은 회수된 조사표 중 사용가능한 총 48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Ⅲ. 結果 및 考察

個人別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482명으로, 연령 별 분포는 20세 이하가 25.7%, 20대 9.1%, 30대

Table-2. 調查 對象 住民의 年齡別, 職業別 分布

구 분	농 업	상 업	공 무 원	회 사 원	그 외	계
20세 이하	0	0	0	0	124	124(25.7)
21세~30세	21	2	0	7	14	44(9.1)
31세~40세	66	10	5	4	23	108(22.4)
41세~50세	66	5	0	4	7	82(17.0)
51세 이상	113	3	1	2	5	124(25.7)
계	266(55.2)	20(4.2)	6(1.2)	17(3.5)	173(35.9)	482(100.)

단위 : 명(%)

22.4%, 40대 17.0%, 51세 이상 25.7%이다(Table-2. 참조).

이는 年齡別 인구수에 따른 결과로서, 학생층인 20세 이하와 노년층인 51세 이상의 住民이 각각 25.7%로서 절반이 약간 넘고, 20대가 가장 적어(9.1%) 농촌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性別로는 남자가 83.6%, 여자는 16.4%이었다.

조사 대상주민의 주된 직업은 農業으로서 55.2%이고, 商業 4.2%, 公務員 1.2%, 會社員 3.5%, 기타가 35.9%이었다.

1. 定住實態와 定住意識

現在の 농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住民의 생각을 조사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Table-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78.0%가 태어나서 부터 농촌에 주로 살아왔으며, 현재 거주하는 부락을 아직은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고(만족 29.1%, 보통 58.8%), 44.4%는 계속하여 居住할 意思가 있었다. 특히 20세 이하층은 농촌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나(만족 49.2%, 보통 41.9%), 계속 거주는 망설이고 있는 것(계속 거주 21.8%, 이사 33.9%)으로 판단되었다. 移住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희망자의 69.9%가 도시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농촌의 장래에 대한 展望이 없어서가 39.5%로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 취업기회제한, 便宜施設不便 순이었다. 20세 이

하는 취업기회제한이 42.3%이었다. 농촌이 삶의 터전으로 개발되어 복지농촌이 되면 돌아와서 살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8.6%를 차지하였다.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부락에 대한 만족도나 居住意思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다.

즉, 조사지역의 주민은 농촌을 아직은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며, 여건만 맞으면 거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전원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농촌에 비해 거주 의사와 농촌 복귀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傳統價値觀

産業化와 西歐化에 의한 국민의 思考가 전통 가치관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치닫는 점을 중시하여 조사지역의 주민의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Table-4).

長男이 아닌 경우에도 代를 이어야 하고(58.7%), 代를 잇는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에 50.2%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80.8%가 家門에 욕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73.9%가 8촌 정도까지를 親族으로 여기며, 이웃사촌을 더 親近하게 생각하는 사람(56.4%)이 많았다. 祖上에 대한 제사도 받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사람이(56.0%) 많았다. 즉, 자신보다는 家門 우위 의식이 아직 常存하고

Table-3. 定住 實態와 定住 意識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 태어나서 주로 살아온 지역은	농촌 78.0	산촌 1.2	읍면소재지 16.8	도시 4.0
○ 이 부락에 살고 있는 것에	만 족 29.1	보 통 58.8	불 만 족 12.1	
○ 계속 거주할 의사는	계속거주 44.4	이 사 23.0	모르겠다 32.6	
○ 이사를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지역 30.6	대 도시 20.1	도시지역 49.8	
○ 이사를 희망하는 이유는	취업기회 15.4	자녀교육 26.8	전망없음 39.5	
	편의시설 14.1	기 타 4.2		
○ 삶의 터전으로 복지농촌 되면	틀림없이 돌아온다 26.4		아마 돌아올 것 42.2	
	돌아오지 않는다 28.3		기타 것 3.2	

Table-4. 傳統 價値觀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 장남 아닌 경우라도 代이어야	그렇다 58.7	아니다 28.4	모르겠다 12.9	
◦ 代 있는 사람에게 특별 대우해야	그렇다 50.2	아니다 42.1	모르겠다 7.7	
◦ 자신에 이롭고 가문에 뭍 되면	안된다 80.8	해도된다 9.6	모르겠다 9.6	
◦ 친족 범위는	4촌 22.0	6촌 19.9	8촌 32.0	10촌이상 26.1
◦ 이웃과 멀리 사는 친족사이는	친족 더친근 40.5	이웃 더친근 56.4	모르겠다 3.1	
◦ 조상 제사 참석은	반드시 56.0	못할 수도 40.7	모르겠다 3.3	
◦ 외지인 이사오면 우리마을사람	오래 살아야 17.8	오는 즉시 77.6	모르겠다 4.6	
◦ 마을 공동생활의 참여는	꼭 해야 92.3	혜택자만 참석 3.9	모르겠다 3.7	
◦ 마을내의 非行은 어떻게 처리	전통규범 61.3	법대로 31.2	모르겠다 7.5	
◦ 마을 공동재산은	꼭 필요 81.5	필요 없음 14.1	모르겠다 4.4	
◦ 어려운 사람 도와줄 책임은	이웃 18.9	국가 11.9	이웃과 국가 64.7	모르겠다 4.5
◦ 마을 중요문제 결정할 주체는	마을유지 1.5	지도자급 16.2	전 체 81.7	모르겠다 0.6
◦ 마을의 공동신앙은	꼭 해 야 7.5	관 습 상 44.1	불필요 31.7	모르겠다 16.7
◦ 마을공동행사가 주민유대에	도움된다 73.6	그때 뿐 19.3	모르겠다 4.6	
◦ 조상들의 풍수사상을	믿는다 47.5	믿을 바 못된다 30.9	모르겠다 21.6	
◦ 홍수, 가뭄등 자연재해 원인은	자연질서 파괴 50.0	기상이변 43.6	모르겠다 6.4	

있었다. 여자의 경우, 이웃사촌 의식이 더 강하고, 제사보다 자신의 일에 더 우선권을 두는 편이었다.

마을에 정착하고자 移住해 오는 사람을 우리 마을 사람으로 생각하며(77.6%), 마을 共同生活은 92.3%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61.3%는 마을내에서 저지른 잘못은 規範에 따라 처벌하기를 원하는 편이었다. 마을 공동재산의 필요성을 81.5%가 인정하였고, 어려운 사람은 이웃과 국가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의견(95.5%)이 대부분이었다. 마을 문제는 住民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며(81.7%), 마을 공동신앙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51.6%)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1.7%)보다 우세하였다. 마을 공동행사는 주민유대에 도움이 된다고 73.6%가 생각하였다. 風水思想은 믿는 경우(47.5%)가 아닌 경우(30.9%)보다 우세하였고, 자연재해도 조화로운 自然의 秩序가 파괴됨으로서 일어난다고 50.0%가 생각하였다. 마을 공동체 의식과 外地에서 移住해온 사람에게 대한 包容力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마을 공동체 생활에 대한 反應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일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본래의 전통적인 思考 傾向을 유지하고 있어 전통가치관의 혼돈이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3. 農業과 營農意識

농업은 자연에 대한 人間勞動의 투입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생산과정은 全人間的이다. 농업 생산의 결과는 인간의 本源的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결과를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하여 갈 수 있다. 즉, 농민은 본질적으로 他人의 도움없이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소비생활에서 스스로의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人間社會는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결과를 소비하여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는 原始的인 관계로 유지되지 않는다.³⁾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조사대상지구의 주민들이 職業으로서 농업과 영농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Table-5. 農業과 營農 意識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절대찬성	찬 성	반 대	절대반대
1. 농업은 해볼만한 직업이다	4.6	29.3	51.5	14.5
2. 농업은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어야 성공한다	11.0	57.5	25.3	6.2
3. 농업도 잘하면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	9.2	49.7	31.6	9.5
4. 농업은 타 산업보다 발전속도가 느리다	19.3	53.6	21.3	5.7
5. 농업을 통해 포부를 달성할 수 있다	5.5	21.8	56.5	16.3
6. 농업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9.2	61.3	26.2	3.3
7.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다	22.4	47.9	23.1	6.6
8. 농업은 장래성이 밝다	1.3	11.6	59.8	27.3
9. 농업을 원하는 자녀 있으면 적극 권장한다	4.9	24.9	45.0	25.2
10. 현재의 영농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싶다	7.9	55.6	30.9	5.5
11. 내 딸이 농민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2.8	26.0	52.0	19.2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5와 같다.

농업은 國家의 根本이라고(70.3%) 여기고 있으나, 농토가 많아야 부자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있어(69.3%) 산업화 물결의 영향이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화학비료, 농약 등을 피해 有機農法에 의한 생산 활동을 원하였다(64.0%). 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은 흥미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68.5%), 해볼만한 職業이 못되며(66.0%), 포부를 달성하기도 어렵다고(72.8%) 하였다. 다른 산업보다 발전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72.9%) 수익성이 높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41.5%) 자신은 營農을 통해 공헌하고 싶지만(63.5%), 자신의 딸이 농민과 결혼하는 것은 반대하였다(71.2%). 또한, 농업은 장래성이 없어 자녀에게 권장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80.2%).

이러한 결과는 農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營農意識도 가지고 있지만, 장래성이 없는 생산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社會的 意識과 認識

일반 사회의 가치체계가 外形的·物質的·經

濟的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 그 사회 공통의 가치기준과 윤리도덕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소박, 순수, 정직, 보수적, 家父長的 가족제도에 의한 전통적 가치관은 농촌의 급격한 도시화 물결속에서 의식구조가 혼란 또는 변모되고 있다.³⁾ 이러한 실정에서, 조사대상 주민의 사회적 의식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6, 7).

집안일은 家長이 주가 되어 부인과 상의하거나(問題別 35.1%에서 52.1%) 가족원 모두가 상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78.4%가 생각하였다. 이는 가부장적 사고에 의한 독단을 피하고 가족 구성원 전부의 참여를 의미하고 있다.

공무원은 농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 직원으로 79.4%가 인식하였다. 여자의 사회적 평등을 77.8%가 인정하고 있었고,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91.6%).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격자로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79.6%) 全人 教育을 생각하고 있었다. 長幼有序는 56.8%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그러한 待遇를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9.5%). 출세, 성공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48.3%) 專門 家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33.0%), 전

Table-6. 社會的 意識과 認識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가장흔자	가장주 부인상의	가장부인主 가장상의	가장부인 혼 자	가족전원 상 의	기 타	
◦ 문제 발생시 결정 방법							
농토구매	4	52.1	8.7	0.6	20.5	0.6	
직장, 직업변경	19.1	48.3	9.1	1.7	20.7	1.0	
자녀교육	8.9	46.9	18.0	1.5	24.1	0.6	
부역용가구구입	5.2	35.1	39.0	10.4	9.8	0.6	
내구소비재	11.4	42.0	22.7	4.6	18.3	1.0	
선거투표	27.0	38.4	7.9	2.3	18.0	6.4	
◦ 가장과 가족원의 생각이 다를때	가장 의사에 복종 9.4		가족원 논의 결정 78.4		결정에 불복종 가능 8.4		모르겠다 4.6
◦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상부 지시 이행 9.2		대민봉사 79.4				모르겠다 5.6
◦ 윗어른에 대한 공경은	무조건 56.8		필요없는 사람있다 39.5				모르겠다 3.1
◦ 남녀 평등은	불평등 17.3		동등한 대우 77.8				모르겠다 4.4
◦ 양반, 상민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3.3		없어야 한다 91.6				모르겠다 5.6
◦ 교육의 목적은	인격배양 79.6		돈벌이 6.1		탈 농사 10.9		모르겠다 3.1
◦ 출세, 성공은	전문가 33.0		많은 돈 14.5		사회적 지위 48.3		모르겠다 4.4
◦ 새소식은 어떤 것을 통해	신문 15.0		잡지 0.6		라디오 2.1		TV 82.3
◦ 좋아하는 프로는	뉴 스 68.8		스포츠 15.2				연속극 10.8
	농사정보 1.0		기 타 4.1				

Table-7. 社會觀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절대찬성	찬 성	반 대	절대반대
1. 수단, 방법 잘못되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2.6	19.2	57.9	20.3
2. 능력부족해도 親知 도움으로 출세해야 한다	5.5	32.0	51.2	11.3
3.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19.4	54.2	22.2	4.2
4.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39.0	56.2	4.0	0.9
5.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	13.4	51.9	31.0	3.7
6. 돈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20.3	63.9	11.7	4.2
7. 실력 있어도 연줄, 배경 없으면 출세 힘들다	15.4	55.7	23.8	5.1
8. 범어거도 아는사람 있으면 처벌 적게 받는다	11.7	52.3	29.1	6.8
9. 잘살기 위해서는 요령, 수단 좋아야 한다	10.4	58.1	27.3	4.2
10.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 같다	20.9	62.9	15.2	1.1
11. 농민들 소득에 비해 씹씀이 너무 크다	15.6	55.9	22.9	5.5

통적 출세욕과 산업사회의 成功觀이 混在하고 있었다.

새로운 소식은 TV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82.3%), 주로 뉴스(68.8%)와 스포츠(15.2%), 연속극(10.8%)을 시청하고 있어, 농민의

愚民化 현상이 우려되었다.

농민의 사회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Table-7),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결과를 배척하고(78.2%), 親知의 도움에 의한 출세는 원치 않았다(62.3%).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73.6

%),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道理라고 95.2%가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65.3%),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받는다 고 생각하였다(83.9%). 개인의 능력으로는 출세할 수 없으며(71.1%) 法을 어기고서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적게 받는다 고 인식하였다(64.0%). 잘살기 위해서는 要領과 手段이 좋아야 된다고 하였고(68.5%),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고 생각하였다(83.8%). 소비면에서 농민 스스로도 씹씹이가 지나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71.5%).

이러한 結果는 농촌에 사는 주민은 대체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雰圍氣는 기회주의의 가치관과 불합리한 사고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社會的·道德的 無秩序(anomie) 狀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농촌을 이대로 방치하면 무질서 상황이 농촌에도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자료이다.

5. 農業·農村 政策과 定住生活의 滿足度

1960년대 末까지 절대식량부족에 따른 자급 능력을 높이는 期間과 1970년대의 主穀 增産期를 거쳐, 1980년대의 상업농 시대에 접어들면서 農政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시대변천에 따라 농업정책을 변화시켜 왔지만, 농지 개혁 이후의 農地所得稅의 계속적인 납부, 農協

任員 任免에 관한 임시조치법 적용, 공업중심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농업경시풍조, 식량소비 형태의 변화에 의한 수급조절과 가격정책의 실패 등으로 일관성이 없고, 불공평한 農業 政策으로 農家 經濟는 악화되고 있다.^{2,3)} 현재 농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農政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Table-8과 같다.

Table-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63.7%가 農業 政策은 일관성이 없고, 관계 기관과 담당자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72.6%가 생각하였다. 농산물 수입, 秋穀收買價, 농산물 가격 및 판로 등 모든 사항이 농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각각, 85.2%, 74.7%, 78.8%, 77.4%), 57.3%가 營農資材도 적정가격으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단지, 의료보험제도는 농민을 위한 좋은 施策으로 인식하고 있었다(66.8%).

歷史的, 社會的, 經濟的 그리고 文化的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농촌의 生活水準 정도를 몇 개의 문항을 통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Table-9와 같다.

5년전의 농촌에 비교하면 所得 水準, 文化施設, 道路交通, 生活環境 등은 개선 또는 향상된 편으로 생각하였고, 物價安定에는 78.1%가 회의적 반응이었다. 教育水準向上에서는 찬성

Table-8. 農業 政策觀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절대찬성	찬 성	반 대	절대반대
1. 농업정책은 일관성 있어 믿고 따를 수 있다	4.4	21.8	52.6	21.1
2. 농업정책 관계기관·담당자는 농민을 위한다	3.3	22.0	57.0	17.6
3. 농산물수입은 물가안정으로 농민에게 이익이다	1.8	13.0	46.0	39.2
4. 작년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적정하다	3.3	22.0	51.0	23.7
5. 농촌의료보험은 농민 위한 좋은 시책이다	15.3	51.5	18.8	14.4
6. 영농자재는 적정가격으로 언제든지 구매가능하다.	4.4	38.3	43.4	13.9
7. 농산물가격적정으로 농민 수지 맞출수 있다	3.1	18.1	52.3	26.5
8. 농산물의 판로는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	2.6	20.0	50.7	26.7

Table-9. 農業, 農村의 生活 水準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절대찬성	찬 성	반 대	절대반대
1. 5년전과 비교한 다음 각항목의 변화정도				
1) 소득 수준 향상	7.9	51.2	31.9	9.0
2) 문 화 시 설	6.1	50.3	35.7	7.9
3) 도로 교통 편의	7.0	59.1	25.8	8.1
4) 생활 환경 개선	4.6	55.8	32.2	7.4
5) 교육 수준 향상	8.1	42.7	38.5	10.7
6) 도시와 생활수준 차이 축소	5.5	40.9	42.0	11.6
7) 물 가 안 정	4.4	17.5	56.2	21.9
2. 현재 농촌의 생활수준은 도시보다 낮다	9.4	28.7	35.5	26.3
3. 5년후, 농촌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8.3	49.0	33.8	8.9
4. 5년후, 都農간 생활수준차는 많이 줄 것이다	4.4	42.1	40.4	13.2
5. 농촌생활은 웬지 답답하고 우울하다	7.2	41.0	43.6	8.2
6.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7.0	43.8	36.1	13.1
7. 농촌은 자녀 교육에 좋은 곳이다	5.0	20.0	47.9	27.1
8. 농촌생활은 노력에 비해 댓가가 적다	29.1	42.3	20.5	8.1
9. 농촌도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4.0	42.0	42.4	11.6
10. 현도시생활 농촌보다 유리하며 한번 살고 싶다	10.3	53.6	27.5	8.6

50.8%, 반대 49.2%로 뚜렷한 改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와 生活水準 差異가 縮小되었다고 보는 주민은 46.4%이었고, 5년후 많이 줄 것이라는 시각도 46.5%로서 앞으로의 개선에도 다소 부정적이었다. 5년후 농촌은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57.3%가 찬성하여 다소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보다는 미래가 농민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불확실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농촌 생활에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농촌생활은 웬지 답답하고 우울하다는 설문에 찬성 48.2%, 반대 51.8%이고, 文化生活을 즐길 수 있는 면에서도 찬성 50.8%, 반대 49.2%로 대등하였다. 즉,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75.0%가 농촌은 자녀교육에 좋은 편이 못된다고 한 점으로 보아 고학력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

된 결과로 생각된다.

노력에 비해 댓가가 적고(71.4%), 농촌에서도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가 가능하다에는 찬성 46.0%, 반대 54%로 회의적 반응이었다. 도시에 사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농촌보다 유리할 것 같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측이 63.9%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 집중 정책으로 농촌사회의 주체인 농민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농촌과 농민의 당면 문제가 도시와 국가전체의 사회·경제문제로 전이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農家人口는 10년전 부터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보여 80년대의 총인구 28.9%에서 90년기준 13.6%로 줄어 들었다(91년 농림수산부 발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 현재 농촌을 지키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곳의 定住생활을 어떠한 만족감에서 살고 있는지 Table-10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Table-10. 農村 定住 滿足度

단위 : %

질 문 내 용	반 응 구 분			
	절대찬성	찬 성	반 대	절대반대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	2.2	21.3	62.2	14.3
2. 근로조건 측면에서의 만족	1.8	19.1	66.2	13.0
3. 직업에 대한 전망의 만족	2.9	17.8	62.4	16.9
4. 직업에 대한 보람의 만족	3.5	33.4	52.1	11.0
5. 삶의 공간으로서의 만족	6.2	49.5	36.3	8.1
6.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만족	13.0	59.8	20.2	7.0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農村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經濟的 側面, 勤勞條件 側面, 職業에 대한 展望과 보람 등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고(각각 76.5%, 79.2%, 79.3%, 63.1%), 삶의 공간으로 만족하는 주민이 55.7%이며 마음의 안식처로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71.8%이었다.

農政과 定住生活面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農業, 農村에 대한 政策은 믿을 수 없으며, 농업은 직업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생활의 水準差가 있지만, 주민들은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로 살아감을 알 수 있었다. 즉, 농촌을 위한 신뢰 받는 政策과 職業的인 營農, 機械化된 營農으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농촌을 영원한 삶의 터전과 마음의 안식처로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위의 결과들을 綜合하여 보면, 현재의 농촌은 農民의 居注意思가 어느 정도 維持되 있으며, 전통적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重要性和 營農意識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마음의 안식처로 알며 살고 있다. 바로 이점을 중요시하여 農村의 定住生活圈 模型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傳統價值觀을 중요시하는 마을 공동체 생활의 場으로, 將來性이 많은 생산 활동의 장으로, 담의 가치를 아는 합리적인 생활의 장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터전으로 농촌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고려하여 신농촌의 정주생활권은 농업적 측면의 접근으로 生産과 住居를 연결하여 計劃하고, 이러한 計劃의 모형 개발은 주민들의 意見을 충분히 收斂할 수 있도록 공간 자료 처리 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공학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한다.

IV. 摘要 및 結論

農村住民들이 안정된 소득과 쾌적한 定住環境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人文, 社會科學의 측면을 고려하고, 農學, 工學的 접근을 시도하여 新農村의 안락한 定住生活圈 施工計劃의 기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료로서 ① 定住 實態와 定住 意識, ② 傳統 價值觀, ③ 農業과 營農 意識, ④ 社會的 意識과 認識, ⑤ 農業·農村 政策과 定住生活 滿足度 등에 대한 농촌 주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구의 농촌(京畿道 安城郡 二竹面)은 居注意思가 어느 정도 유지되므로, 여건만 맞으면 거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傳統的 價值觀이 존재하며, 마을 일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3. 農業에 대한 重要성은 인정하고 營農意識도 가지고 있지만, 장래성이 없는 생산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4. 농촌에 사는 住民은 대체로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분위기는 機會主義的 價値觀과 불합리한 사고가 支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5. 農政은 믿을 수 없으며, 농업은 職業으로 또한 經濟的으로 만족할 수 없고 도시에 비하여 생활의 수준차가 있지만, 주민들은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로 살고 있다.

6. 新 農村의 定住生活圈 模型 개발은 전통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마을 공동체 생활의 장으로, 장래성이 많은 생산 활동의 장으로, 맘의 가치를 아는 합리적인 생활의 장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터전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

參 考 文 獻

1. 경기도, 1983, 안성정주생활권개발계획, pp. 507-520.
2. 농촌개발연구회, 1988, 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p. 430.
3. 조홍수, 이필영, 1989, 농민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21집, pp. 25-50.
4. 최수명, 1984, 한국농촌의 정주권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최재율, 1988, 농촌사회학, 유풍출판사, p. 446.
6. Woodruffe, B. J., 1976, Rural Settlement Policies and Plans, Oxford University Press.